

지역 소식통

농번기 공동급식 확대 추진

완주군, 현장 조사·실태조사 등 거쳐 56개소 확정 35일간 시행

완주군은 2017년 상반기 농번기 공동급식을 이달부터 지역내 56개소를 대상으로 35일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6일 군에 따르면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영농철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마을주민들의 건강도 챙기고, 이웃간 친목도모와 농사일에 서로 정보를 교류하는 등 농번기 마을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돼주고 있다.

군은 올해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당

초 45개소 운영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의 관심과 지원율이 높아 현장 조사 및 실태조사, 농정심의회를 거쳐 56개소를 최종 확정했다.

공동급식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70일 정도로 진행되며, 상반기에는 농번기인 4월부터 6월까지 35일간 정해 운영한다.

특히 마을당 급식종사원 인건비 및 부식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에는 1억3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강력성 농업농촌식품과장은 "해가 거듭할수록 농번기 공동급식을 통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2011년 도내 처음으로 17개소를 시작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며, 지난해에는 48개소에 1억9000만원, 올해는 2억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원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공설운동장 '새단장'

자연친화적 공원형의 관중석·개방형 산책로 구비 등

완주군 공설운동장이 자연친화적 공원형의 관중석을 갖추고, 개방형 산책로도 구비하는 등 생태형 종합운동장으로 새로 태어난다.

6일 군은 주민의 여가선용과 건강한 생활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삼례읍에 위치한 공설운동장 시설을 개선하고자 13억5000만원을 투입, 생태형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2003년 준공된 공설운동장 시설을 개선하고자 2016년 국민체육진흥공단 공모사업에 응모, 기금을 확보함에 따라 2018년 10월까지 노후된 운동장 시설을 개방형 운동장으로 조성키로 했다.

생태형 운동장은 기존의 관중석을 철거하고 자연친화적 공원형 관중석을 조성해 개방형 산책로를 설치하는 등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해 문화와 생태가 연계된 스포츠 시설의 재생사업으로 추진된다.

특히 국제규격에 적합한 천연잔디 축구를 설치할 방침이다.

또한 다양한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운동장 인근의 문화체육센터에 농구대 및 탁구대 설치, 체육관 마루 보수를 마치고 재개장함으로써, 주민 및 동호인의 기대에 부응키로 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6월 말까지... 소득·재산·인적조사 통한 부정수급방지

김제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된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적자료 변동에 대한 상반기 확인조사를 오는 4월 3일부터 6월 말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

금번 조사는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를 반영함으로써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정보 등 24개 기관 71종의 공적자료와 134개 국내의 금융기관의 자료를 취합해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지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초중고교육비, 타발료료급여(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국가유공자)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등 총 3,277명이다.

조사방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소득·재산·인적정보 자료를 확인하여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급여변동자와 예상탈락자는 사전통보하여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고, 고의나 허위신고 등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급한 보장비용을 환수할 예정이다.

또한 가족관계 기피, 해체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

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속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하고, 복지급여 탈락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민간기관 서비스와 공적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연계해 복지수급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복지대상자가 억울하게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조사와 함께 소득·재산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확인조사과정에서 급여변동이 예상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사전 의의신청기간 부여 등으로 수급자의 생활안정과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보장중지대상자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차상위제도, 민간지원등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도의원 함께하는 정책간담회 열어

김제시(시장 이진식)는 6일 정호영 전라북도의회 부의장, 강병진 도의원과 이승복 부시장을 비롯한 사업담당 과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의원과 함께하는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관내 음식점에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국회·도·시의원과 정책간담회시 시장현안 해결과 '2018년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한데 이어 지역발전특별회계 신청과 전라북도 제1회 추경에 대비하여 사전에 주요 현안사업 도비 신규 및 확대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주요 도비확보 현안사업으로 김제시 보훈회관 건립, 김제육교 재가설사업, 하기전용구장조성 지적예산 지원, '17년 농업기계박람회 개최 등 6개 사업이며 타시도와 비교하여 도 지원이 적은 사업과 시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도비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승복 부시장은 "우리는 올해 국비 및 도비 확보가 매우 중요한 만큼 전북도 추경에 한발 앞서 해당 사업부서에 사전설명을 하였고, 금번 간담회를 통해 도의원들의 현안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낸 소중한 자리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주요현안 해결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의견 교환과 신뢰협력을 통해 김제시 발전의 추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김제시는 7일 오전 9시30분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및 관계공무원 87명을 대상으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주로 일하는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지식전달을 위해 마련되었다.

안전보건교육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문화부 김영훈 차장이 강사로 나서 우리나라 성장과 산업재해현황, 안전에 대한 우리의 모습, 사고의 발생원인 및 예방대책, 재해사례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례 및 안전작업 요령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김인아 경제교통과장은 "일을 함에 있어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므로 건강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하고,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해피 맘 파워 맘 프로그램 '호응'

매주 수·목요일 오전 운영

완주군이 여성의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해피 맘 파워 맘' 프로그램을 운영해 임신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6일 군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봉동지역과 이서지역 등 2개 권역에서 임신부에게 건강한 자녀의 출산을 유도하고 임신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올해 2월부터 매주 수요일, 목요일 오전에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임신 과정에서 수반되는 증상 관리방법, 분만시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순산요가, 임신중 소홀하기 쉬운 영양관리를 비롯한 신생아 케어방법 및 모유수유, 산후 우울증 예방, 출산용품 만들기, 월령



별 이유식 교실 등으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완주군 산림조합에서는 4월 식목주간을 맞아 교육을 받는 임신부들에게 예쁜 탄생 목(철쭉) 45주를 후



죽산면 첨단농업 종자사업소 내방객 '문전성시'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춘기)는 지난해 죽산면에 준공한 첨단농업 종자사업소 미니씨감자 양액재배 생산 시설 견학을 위해 내방객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1월 중국 감숙성 신농촌연수단 30명을 시작으로 귀농귀촌 교육생 67명, 한국농수산대학 특용작물학과 65명, 필리핀 기독교인 20명,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인 자영고 및 교육청 관계자들과 유라시아 대학교 박사 등 6일 장수농촌지도자대회에서 35명이 방문했다.

첨단농업 종자사업소는 조직배양을 통해 무병묘 미니씨감자를 양액재배

생산하여 김제시 농가에 공급하는 일이다. 미니 씨감자 양액재배 생산은 1동(6,864㎡)에 추백, 수미, 추동, 대지, 새봉 5개 품종을 재배하여 봄, 가을 년 2회 150만개의 감자 종자를 생산 분양할 계획이다.

김제시 종자산업 특구와 연계한 첨단농업 종자사업소는 특정한 무병묘 씨감자 생산 기지이며, 분양된 미니씨감자는 농가 포장에서 2회 이상 증식하여 종자로 활용할 경우 1,000ha 이상 재배할 수 있어 씨감자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고, 외지로 나가는 씨감자 구입비용 22억 정도를 절감할 수 있어 재배농가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한다. /김제=곽노태 기자